

보도시점 2026. 3. 1.(일) **배포 시** 배포 2026. 3. 1.(일)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①방역지역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②포천 전체 산란계 농장의 출입차량·물품 등 매주 환경검사, ③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 실시 등 총력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일(일)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24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2월 27일(금) 경기 포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산란계 폐사 증가로 포천시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5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 축종별 : ①(닭 33건) 산란계 26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②(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③(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최근 철새 북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북부 지역(경기, 강원 등)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검출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가금농가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2월 28일(토)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 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28일(토) 13시부터 3월 1일(일) 1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 방역 관리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포천 산란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포천 전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난좌, 파레트 반드시 포함) 대상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사람·차량·물품 등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차단한다.

셋째, 전국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 특히 밀집단지과 2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 이외 3월 중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알, 분뇨, 사료 운송)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도 병행 실시

넷째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장 내 이상 개체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개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3월 한 달간 가금농장 대상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한다.

* 주요 추진사항 : ①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 신기’, ②일제 청소·소독, ③구서 작업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철새 북상 등의 영향으로 이동경로에 있는 경기, 강원 등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검출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오염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주요 도로, 가금농장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관내 가금농장에 위험 정보를 공유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 포천시 내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는 포천시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산란계 농장의 환경검사 등 방역 조치 뿐만 아니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에도 7개 시·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 및 관계자들은 3월에도 농장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정승교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병용 (044-201-2555)